

# 김학범호, 우려가 현실로... '5팀 속한 조'에 배정됐다

지난 5일 편성 결과 그대로 반영... 누락된 UAE 한국과 같은 E조  
타 그룹과 달리 5개국 경합해 1경기 더 치뤄야... 체력 문제 대두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아시안게임에서 '김학범호'가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4개국과 한 조에 편성됐다.  
25일 열린 조추첨에서 한국이 속한 E조엔 기존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 외에 UAE가 추가로 합류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아시아축구연맹(AFC)은 3자 협의를 통해 지난 5일 실시한 편성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당시 누락된 UAE와 팔레스타인을 25일 기준 6개 조 중

두 조에 한 팀씩 배정하기로 했다.  
결국 UAE가 한국과 같은 E조로 편성됐다. 팔레스타인은 개최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A조에 들어갔다.  
한국에는 정천벽력 같은 소식이 다. A조와 E조는 다른 그룹과 달리 5개국이 경합을 펼친다.  
조별리그부터 4경기를 치르는 것이다. 백백한 일정, 더운 날씨, 단 20명이라는 최소 엔트리로 대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 경기를 더 치르게 된 만큼 체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학범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5팀과 한 조가 되면 안 된다"

며 우려를 표명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 한국은 결승에 오를 경우 조별리그 4경기과 토너먼트 4경기 등 총 8경기를 치르는 셈이 된다. 특히 새로 들어온 UAE가 중동의 강호란 점에서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한국은 내달 12일 바레인과 1차전을 치른다. 15일 UAE전, 17일 말레이시아전, 20일 키르기스스탄전을 벌인다.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6강~결승전을 소화한다. 내달 9일 이라크와 국내 평가전, 10일 출국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리는 한국 축구는 유럽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잘츠부르크), 이승우(베로나) 등을 모두 불러들여 강한 우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메뉴와 콘텐츠 접근성 강화 · 디자인 개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1년여를 앞두고 대회조직위원회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wangju2019.com>)가 새롭게 개편됐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회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와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태블릿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선수권대회뿐만 아니라 일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 홍보

를 강화했으며, 대회관련 정보 외에도 개최도시의 문화, 관광정보 등 다양한 볼거리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연동을 강화하는 등 대회 정보, 종목 소개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 대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해외 홍보를 위해 8월 초부터는 한국어와 영어로 서비스 되는 홈페이지에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언어 전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는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하기 위해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수영선수권대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 댓글을 남기면 된다.

## 33세 호날두, 신체나이는 20세 "체지방·근육량 남달라"

축구 선수 평균치 체지방률 3% 적고 근육량 4% 많아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결과, 스무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미러'는 2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로 이적한 호날두가 최근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다며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미러는 "이적료 1억6000만 파운드(약 1560억원)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옮긴 호날두의 적잖은 나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메디컬 테스트 결과, 이적료는 전혀 부풀려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호날두는 20세의 신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왔다. 자신보다 13세 어린 선수들과 같은 신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썼다.  
체지방률, 근육량 등 검사 결과에 따른 분석이다.  
호날두는 체지방률이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축구 선수들의 평균인 10%보다 아래다. 근육

량 역시 50% 수준으로 다른 선수들의 평균 46%보다 4%포인트 가량 높다.  
호날두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하다. 술, 담배, 탄산음료 등을 입에 대지 않고 근육 이완과 체지방 감소 효과를 위해 한여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훈련한다.  
식단 관리도 철저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호날두의 집을 방문한 동료들은 샐러드와 닭가슴살 만 있는 식단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뉴시스

## 호날두·메시·음바페·모드리치 등 FIFA 올해의 선수 후보

네이마르 탈락 자존심 구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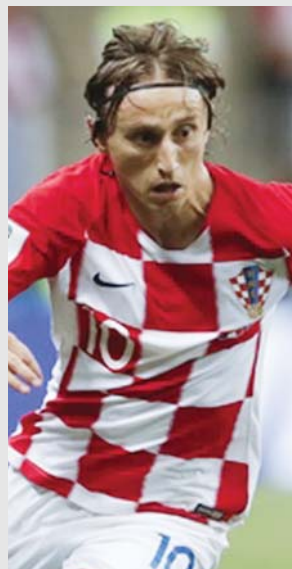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루카 모드리치(크로아티아),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등이 2018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남자) 1차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의 간판 네이마르는 제외됐다.

FIFA는 25일(한국시간) 올해의 선수상의 1차 후보 10명을 발표했다.

호날두와 메시가 자리한 가운데 러시아월드컵에서 절정의 기량을 선보인 모드리치와 프랑스의 신성 음바페가 포함됐다.

또 월드컵 득점왕 해리 케인(잉글랜드)을 비롯해 앙투안 그리즈만, 라파엘 바란(이상 프랑스), 무하마드 살라(이집트), 케빈 더 브라우너, 에덴 아자르(이상 벨기에)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마르는 1차 후보에 포함되지 못해 자존심을 구겼다. 최근 네 차례 시상에서 호날두



와 메시가 나뉘어졌다. 호날두는 2008년, 2016년, 지난해에 수상했고 메시는 2009년에 트로피를 올렸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FIFA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가 통합으로 운영됐다. 이때도 호날두와 메시가 양분했다. 호날두가 2013년

과 2014년, 메시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에 수상했다.  
올해 역시 호날두와 메시 중 타이를 수상자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러시아월드컵에서 볼풍을 일으키며 프랑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음바페와 크로아티아의 사상 첫 결승 진출을 이끈 모드리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FIFA는 9월 초에 최종후보 3인을 정하고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투표, 팬 투표, 미디어 투표 등의 결과를 합산해 수상자를 정한다.  
발표와 시상식은 9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있을 예정이다.

## 전북 이재성,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 유력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의 최우수선수(MVP) 이재성(26·전북)이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전북과 이적 시장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성이 독일 분데스리가의 2부 홀슈타인 킬로둥지를 옮긴다. 이적료는 150만 유로(약 20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박판 조율만 남았다"고 했다.

하성과 고려대를 거친 이재성은 2014년 K리그 데뷔 시즌에 26경기에 출전해 활발한 활동력과 이타적인 스타일을 잘 살려 연착륙했다. 데뷔 첫 해 4골 3도움을 기록했다.  
선수층이 두꺼운 전북에서 주전으로 자리매김했고 지난해에는 8골 10도움으로 우승과 함께 MVP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도 17경기에 나와 4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 다녀오면서 경험도 쌓았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러 일찌감치 병역의무를 해결한 이재성의 유럽 진출은 예상됐던 일이다.

본인이 꾸준히 해외 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최강희



전북 감독 역시 이재성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재성은 월드컵이 끝나고 "과거 A매치에서 유럽 팀을 만날 때나 이번 월드컵에서나 강한 팀과의 경기할 때마다 내 한계를 느꼈다"며 "너 큰 무대에 가서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과 매일 훈련하고 또 적응하면 내 실력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축구인생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홀슈타인 킬은 비록 1부리그는 팀이 아니지만 2부리그의 상위권으로 승격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성을 바로 주전급으로 활용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